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

홍병선*

주제분류 문화철학, 예술철학, 융합학

주요어 문화예술 활동, 가치 생산성, 문화콘텐츠, 고유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 활동, 인문학적 근거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경제적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경제적 가치로서의 재화는 그 자체로 생존과 결부된 형태로 그 가치가 측정된다는 점에서 고유 가치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경제적 가치의 축적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에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호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고유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경제 소비자가 고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 계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유 가치를 향유하면서 유효가치가 창출되는 올바른 사회시스템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유 가치의 생산과 향유를 위한 일련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창조적 문화예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고유 가치의 확보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창조 활동임에 분명하

* 중앙대학교

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고유 가치를 지니는 창작 활동이 경제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이 때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교환과 소비를 거쳐 예술에 대한 향유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예술 창조활동 자체에 따른 고유가치가 제한되거나 훼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만,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는 문화의 창조, 전달, 교류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문화예술 활동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는 말

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 적용 배경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개인의 기호가 대중화됨에 따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니는 것에서 비롯된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심미적 가치로 승화시켜 인간 본능에 따른 추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비자는 문화예술이 갖는 상품성 혹은 가치를 경제와 연결시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한된 가치만을 지녔다. 하지만 이제는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예술이라는 심미성까지도 포섭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본질적 가치 및 경제적 측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어느 국가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성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서의 문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문화예술과 직결되는데,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그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 요구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인간의 생존 및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와의 상관관계와 관련한 연구 활동은 이제 문화의 소비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과 조건에 따른 토속문화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발정책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공동체의 상호 소통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본질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화예술 활동과 경제 활동 각각의 가치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문화예술 활동에서 고유가치가 갖는 의미

생산 활동에 있어 인간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평가 기준으로 ‘고유 가치(intrinsic value)’¹⁾를 들 수 있다. 고유 가치는 단순한 모방에 따른 산물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나름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갖는다. 러스킨(John Ruskin)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생존 유지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의 유효 가치와 함께 이와 구분되는 고유 가치를 들고 있다.²⁾ 러스킨은 고유 가치에 대해 다음과

1) ‘intrinsic value’는 철학에서 통상 ‘본래적 가치’ 혹은 ‘내재적 가치’로 번역하는데, 본 논의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유 가치’로 번역할 것이다.

2) 아담스미스는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술론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자신의 경제학 체계 안에 예술문화론을 뚜렷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 반면 그러한 시도를 처음으로 수행한 사람은 J. 러스킨이었다. 러스킨은 당시의 경제학의 중심과제의 하나인 ‘가치’론 속에 예술(품)의 가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목표로 논의를 전개한 최초의 인물이다. 임상오(2012), “John Ruskin’s Cultural Economics”, 『문화경제연구』 제15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3-19쪽. 임상오(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류: John Ruskin의 사상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5권 1호 참조.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유가치란 삶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힘이다. 어떤 주어진 성질과 무게를 지닌 하나의 물질은 그 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지닌 꽃 한 송이는 다양한 감각과 내부에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불러 넣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꽃의 고유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건 그들 나름의 힘은 그 속에 있고 그 특수한 힘은 그 밖에 어떤 곳에도 있지 않다.”³⁾

러스킨은 삶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 지닌 절대적인 힘을 고유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유 가치는 생명체의 생존활동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단순한 자연의 성질과 달리, 자연 그 자체가 지탱되는 이면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종에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한 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명 유지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화나 이를 생산, 공급하는 역량을 포괄하는 가치로써, 이른바 건강이나 삶의 보람 등과 같이 삶의 질을 지원하는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⁴⁾ 여기에서 절대적인 힘이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예술적인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도 직결된다.⁵⁾ 이와 함께 러스킨은 유효가치의 창출 가능성을 고유 가치와의 연관 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 John Ruskin(1905), *Munera Pulveris*, 1장, C. 13. 이케가미 준(1996), 「문화경제학의 방법론적 이해: 고유 가치와 생활의 예술화」, 『예술문화연구』 제6권,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55쪽.

4) 안영길(1989),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21쪽.

5) 황서미(2014), 「문화경제학적 가치론에 입각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예술경제사상을 중심으로」 참조

“유효 가치를 갖는 생산은 다음 두 가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데, 첫째는 본질적으로 유효한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고유 가치와 수용능력이 만나는 곳에 유효가치 혹은 부가 산출된다. 하지만 고유 가치와 수용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효가치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⁶⁾

이러한 러스킨의 주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유효한 것을 생산하는 능력의 개발과 아울러 수용능력의 개발을 통해서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 말은 고유 가치를 제공하거나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일중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유 가치는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시사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술적인 가치와 무관한 재화나 서비스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상황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 재화를 획득하는 경우, 이 때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결부된 경제적 형태로 그 가치에 대해 측정하게 되고 많고 적음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고유 가치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따른 재화의 축적 과정이 반복된다면 생산 활동에 있어 고유가치가 희석되고, 도구적 이성⁷⁾에 의해 지배되는 단순한 인간의 욕구 충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 재화의 축적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에서 재화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를 재발견하며, 그 존재를 사회에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경제소비자가 고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 계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

6) John Ruskin, *Munera Pulveris*, 1장, C. 14. 이케가미 준(1996), 56쪽.

라서 고유 가치를 향유하면서 유효가치가 창출되는 올바른 사회시스템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유가치의 생산과 향유를 위한 일련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창조적 문화예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유가치의 향유를 위한 유효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생산 활동과 문화적 예술 활동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 어떻게 대립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우선 경제적 생산 활동은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반면, 문화예술 활동은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또한 경제적 생산 활동의 경우 경제 규모, 시장 확보 등의 경제논리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적 예술 활동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문화논리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가족, 직업, 민족, 언어 등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⁷⁾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과 경제가 어떠한 가치규범에 의해 평가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생산 활동은 유효가치 창출이라는 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반면, 문화적 예술 활동은 고유가치가 결과적으로 창출되기는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차별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 환경 속에서 인간이 구축한 정신적 실체의 총체로 여길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을 둘러싼 자연적, 인위적 환경 모두를 광의의 환경이라고 보았을 때, 자연환경에 대해 인간이 형성한 정신세계로의 환경적 관념에 해당한다.⁸⁾ 그래서 개

7) 황현탁 역(1999), 『문화경제학』, 나남출판사, 234쪽.

8)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환경에는 사회 규범이나 종교 등의 정신적 구축물, 음악, 연극,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등을 말하고, 법, 정치시스템, 학술, 교육제도 등의 사회적 제도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라이프스타일) 등에서 원천적인

인의 흥미와 관심이 상상력을 통해 창작을 촉발시켜 창조적 결과를 낳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환경이 결국 새로운 가치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역에 따른 전통, 관습에 의해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의 기질이나 지리적 여건 혹은 도시의 이미지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활동과 경제적 생산 활동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단순화시켜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생산 활동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또한 효용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요소를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런데 문화 활동은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문화 활동의 산물은 경제 활동에 문화적 자원 혹은 문화에너지를 공급하며,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가치를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서 문화역량이 축적되고 역량의 일부가 전환되어 문화 수용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결국 문화란 형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 노하우 등 잠재적인 형태로 계승되는 추상적인 구축물의 총체로서 인간 삶의 환경을 구성하기도 한다.

3.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의 파급효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⁹⁾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특정 국가의 전통과

삶의 미학, 문화재, 첨단산업 등의 역사적 유산이 포함된다.

9) 문화콘텐츠는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 콘텐츠는 본래 개개인의 자주적, 자발적인 활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가능한 자립적, 자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사적인 활동으로서는 제약이 따르는

문화, 정서, 환경, 가치 등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는 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문화콘텐츠는 유용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생산된 상품과 달리 그 자체로 고유성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가 않다.¹⁰⁾

또한 문화콘텐츠는 일반제품과 달리 하나의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깊숙이 침투하여 수익모델을 다원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경우 신제품 생산단계에서는 많은 투입(노력, 연구)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생산된 이후의 재생산 비용은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현대 산업의 핵심적인 측면임을 감안할 때, 문화의 대중적 소비활동이 경제의 새로운 생활과의 연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문화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생산이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은 종래의 경제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의 발전·보급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처럼 문화산업은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소비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쳐 어떤 산업분야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의 발전이 문화를 재생시키고 이것은 또 다시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의 확산과 보급이 결과적으로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경우 문화와 경제의 독자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10) 홍병선(2015),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철학탐구』 제37집, 94쪽. 홍병선(2014),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융합연구의 방향과 그 대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1호 참조.

성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문화예술 활동이 이윤원칙에 바탕을 둔 시장원리와 작·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다는 21세기의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¹¹⁾ 말하자면, 문화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와 경제의 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콘텐츠(작품)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둘러싼 여러 파생시장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그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한 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의 감상이나 공연 및 축제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곳으로 가야만 한다. 또한 장기적인 체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투자를 일일이 감안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로 곧장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¹²⁾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흥미와 관심을 통한 생산적 가치는 삶 속에서의 생산성을 갖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산업적 추구와 동시에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한다.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 생산성의 근거가 되고, 나아가 정치·경제적 구조에 따라 사회의식 등을 결정하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과 가치 생산성과의 상관관계는 상상력에 의해 문화예술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삶의 질적 가치를 재고하는 효과로 드러나게 된다. 문화적 창조는 내면적인 창조로서만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사회적 활동 역시 포함한다. 예로부터 예술가는 창작자인 동시에 ‘예술과 사회적 만남’을 주선하는 존재¹³⁾라는 점에서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매니저인 셈이다. 그

11)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 준 인물은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앨빈 토플러이다.

12) 홍병선(2015), 95-6쪽.

13) 소비라는 측면에서 소비 선택의 기준이 상품 자체에 대한 물리적 효용가치뿐만

래서 문화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탐구의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제작자의 예술적 발상을 통한 상상력 및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교환에서 비롯된다.

4. 가치 생산성의 인문학적 근거

문화예술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알프레드 마셜(Alfredo Marshall)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예술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마치 작품의 심미적 가치(고유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처럼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통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고유 가치라는 문화 원리에 비추어 비록 우수한 문화콘텐츠로 평가받기는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의 흐름에 편승하기 어려운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시장원리에 맞게 경제의 흐름에 편승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선호도에 부합하거나 단기간에 채산성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문화는 부정적 관점에서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 역시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콘텐츠의 고유 가치 확보가 시장 원리에 편승할 경우 상업화로 전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유가치의 확보와 평가는 시장원리에 편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를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1] 문화콘텐츠의 고유 가치의 확보는 시장 원리에 편승할 수도 있고, 편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제 2] 시장 원리에 편승한다면, 그것은 상업화로 전락할 것이다.

[전제 3] 시장 원리에 편승하지 않는다면, 상업화로 전락하지는 않

아니라, 소비자의 정신적 만족도로 선회하고 있다.

지만 문화콘텐츠 고유가치의 확보와 평가는 상호 독립적이다.

[결 론] 상업화로 전락하거나 문화콘텐츠 고유가치의 확보와 평가는 상업화와는 상호 독립적이다.

이 논증은 타당한 양도논법(dilemma)이기는 하지만, 결론이 선언 진술(disjunctive statement)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두 가지 선택지를 포함하게 된다. 즉, 문화콘텐츠의 고유 가치의 확보는 시장 원리에 편승하여 상업화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상업화로 전락하지는 않지만 문화콘텐츠 고유가치의 확보와 평가는 상호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선택지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말하자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고유가치의 확보가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적 활동과 상호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남기게 된다. 최근 들어 두 선택지가 동시에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작가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적 활동과 무관하게 고유 가치가 확보될 수 없다는 관점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율적 활동으로서의 창작은 그 자체로 고유 가치를 지니기도 하겠지만,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은 경제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예술 창작활동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문화예술과 경제와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의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이나 바람직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바람

직한가에 대한 문제를 함축한다. 이를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전제 1]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면,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는 있겠지만, 고유가치 창출이
라는 예술 창작활동 자체를 훼손되지는 않는다.
- [전제 2]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 [결 론]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는 있겠지만, 고유가치 창출이라는
예술 창작활동 자체를 훼손되지는 않는다.

이 논증은 조건논증으로서 타당한(valid) 논증이다. 하지만 건전한(sound) 논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true)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와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적 활동에 따른 고유가치의 확보가 경제적 활동과 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위의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의 결과에 의존한다.

우선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거에 관한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작품)와 소비자와의 상관관계에서 예술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예술 소비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곧장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치 생산은 곧 소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가 없는 생산은 무의미한 것과 같은 이치인 셈이다. 이는 곧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작품 혹은 문화콘텐츠의 창작이라는 고유 가치는 교환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¹⁴⁾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문화콘텐츠의 물리적 거래가 가능

한 것은 물질적인 화폐유통 시장, 즉 시장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고유 가치를 갖는 문화콘텐츠와 유통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은 결국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환과 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곳, 즉 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일종에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일종에 당위성(ought to)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가 상업화되어서는 고유가치가 확보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과연 고유가치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fact)을 함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사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당위가 사실을 함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무어(G. E. Moore)에 따르면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하거나 그 역으로 당위에서 사실을 도출하는 것 역시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당위성이 고유가치가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예술에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예술과 매니지먼트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혹은 우려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업화로의 전락이라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당위의 문제가 고유가치의 확보라는 사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매니지먼트

14) 홍병선(2015), 95쪽.

를 통한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수행은 문화예술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조직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수행은 그 가치를 차별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결국 문화예술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결국 문화예술의 교환과 획기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에서 비롯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진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동시에 문화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결국 문화예술의 진보를 통한 재생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과의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문화예술 활동은 본래 개개인의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창조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적인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적 활동으로서의 창조는 고유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경제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이 때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교환과 소비를 거쳐 예술에 대한 향유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예술 창조활동 자체에 따른 고유가치가 제한되거나 훼손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만, 사회 전체적 맥락에

서는 문화의 창조, 전달, 교류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문화예술 활동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매니지먼트는 이윤을 극대화함에 있어 보다 높은 가치실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매니지먼트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경영 시스템과 예술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인 연결되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로운 고유가치의 확보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하나는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거에 관한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작품)와 소비자와의 상관관계에서 예술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예술 소비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곧장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고유 가치를 갖는 문화 콘텐츠와 유통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의 창작이라는 고유 가치는 교환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은 결국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환과 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곧 시장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창작 원리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고유가치의 확보가 본질적으로 ‘이윤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고유가치의 확보가 이윤의 원칙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논리의 편승하는 것이 고유가치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전히 우려할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다양한 취미에 부합되거나 단기간에 채산을 맞추는 것이 손쉬울 경우 문화예술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상업화로 전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역
격차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동원 (2010), 「창조적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창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연구」, 『인문콘텐츠』 제19집.
- 김세훈(2015),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통권30호), 한국문화산업학회.
- 서정교(2004), 『문화경제학』, 한울출판사.
- 안영길(1989),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 임상오(2012), “John Ruskin’s Cultural Economics”, 『문화경제연구』 제15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 임상오(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류: John Ruskin 의 사상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5권 1호, 한국경제학회.
- 조부근(2009), 『글로벌시대의 문화산업과 문화교류』, 민속원.
- 최연구(2009),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과학기술정책』 제19권 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동승(2012), 「문화기술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제27집.
- 홍병선(2014),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융합연구의 방향과 그 대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 홍병선(2015),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철학탐구』 제3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황서미(2014), 「문화경제학적 가치론에 입각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예술경제사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케가미 준(1996), 「문화경제학의 방법론적 이해: 고유 가치와 생활의 예술화」, 『예술문화연구』 제6권,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 황현택 역(1999), 『문화경제학』, 나남출판사
- Peter F. Drucker, *Peter F. Drucker on Innovation*, 권영철, 전미옥 역(2006),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John Ruskin(1910), *Gold, a Dialogue Connected with the Subject of*
“*Munera Pulveris*”, Nabu Press.

Humanistic Foundation with Valuable Productivity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Hong, Byung-Sun (Chung-Ang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tended to clarify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is reason, here insists tha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rough the elucid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and the economic value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what effects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more of the culture and arts in presenting the literary basis of value productivity.

We know that it is essentially carried out by each person of spontaneity to the original to ensure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that regard, it is clear that what it is autonomous creative activity. However, there are constraints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rom the socio-economic aspects at any cost. For creative activities with the so-called intrinsic value can not be independent of the economic activity, they are dominated in the market principle. So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ometimes through the consumption and exchange based on market principles, will be leading to the enjoyment of art. In order to follow market principles, it is not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ntrinsic value associated with artistic creation activity that is damaged or limited.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value such as through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and exchange of culture in the whole context of society gives again impact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ecause the goods as economic value evaluates the value in the form

associated with survival in itself, the intrinsic value has its differentiation. So that it is in the system dominated by the accumulation of economic value is divided depending on whether we owns the goods (large or small), and is generated by extreme circumstances eventually in any case.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we recognize the intrinsic value based on a social consensus and the principal economy of a system capable of actively to enlighten our ability and to enjoy the intrinsic value construction is required. Therefore, while enjoying the intrinsic value,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social system is essential to have the effective value. These systems asserted here assume economic activity for the creation and the enjoyment of intrinsic value.

Key word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Value productivity, Cultural content, Intrinsic value, Economic Value, Economic activity, Humanistic grounds

홍병선 E-mail: hbshong@cau.ac.kr

투 고 일	2016년 07월 24일
심 사 일	2016년 08월 01일
게 재 확정	2016년 08월 12일